

姜豹菴

崔 淳 雨

근래 姜豹菴에 關한 資料들이 發見되어서 注意를 끌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姜豹菴이 차지하는 畫壇史的인 位置라던가 그의 作品이 대로 하고 있는 새로운 評價 등을 一瞥하고자 한다. 그 資料의 하나가 松都紀行帖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畫帖이다. 이것은 서울 李洪根氏所藏으로서 그 存在는 벌써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 畫帖에 남겨진 寫實風景 畫에 나타난 蹠步의 獨步의인 表現樣式과 描寫技法에 적지 않은 感銘을 받게 되었다. 이 松都紀行帖은 作品年代를 확실히는 밝힐 수 없지만 姜豹菴 自身이 老年期의 어느 해에 직접 松都에 旅行해서 松都와 天摩山 사이의 絶景을 두루 살피며 寫生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資料는 靜春樓帖으로서 이것은 姜豹菴의 自筆 自畫像까지 포함한 自傳的인 內容을 갖춘 資料이다. 그분의 出生으로부터 五四세까지 지내온 過去를 自傳體로 기록한 것으로서 姜周鎭 國會圖書館長의 秘藏이다. 이 自傳에는 豹菴의 人間과 藝術 그리고 그 生涯에 대하여 세롭고도 매우 소중한 知見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豹菴의 그림하면 顧氏畫譜나 芥子園畫傳 등의 中國 그림體帖에서 풍기는 內容을 담은 그림들, 그리고 黃鶴山樵나 黃大癡、沈石田法등을 연상시키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었다. 따라서 姜豹菴의 藝術에 대한 評價 역시 그러한 것이 그분의 평가에 막연한 비능률이루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앞서 말한 松都紀行帖같은 것은 전연 새로운 수법으로 매우 意慾的인 그림을 그렸고 이것이야말로 같은 時代에 있어서 술이나 燕京畫壇의 어느 畫家의 筆體에서도 볼 수 없는 豹菴 獨自의인 자기 스타일을 보인 것으로서 화가로서 매우 높이 평가하기에 충분한 功성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意味에서 이 두가지 資料의 存在는 豹

菴研究를 위해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겠다.
이제까지 國朝文科榜目이나 海東族譜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姜豹菴은 一七一三(肅宗 三九年)에 出生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靜春樓帖의 自傳 속에서는 生日까지 潤 五月二二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의 在世는 一七一三年 五月二二日에 出生해서 一七九一年 正月 七九歲로 歿했음을 알 수 있다. 또 豹菴이라는 雅號는, 어려서부터 자기 등 뒤에 흰 班紋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것이 마치 표범의 무늬와 같았기 때문에 豹菴이라고 自號했노라는 사실을 이 自傳속에서 밝히고 있다. 豹菴은 晉州姜氏로서 禮曹判書를 지낸 姜親의 아들이었고, 祖父는 雪峯 姜栢年, 外祖父는 本人의 靜春樓帖 속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廣州 李公이라고 하고 있다.



圖 1: 松都紀行帖中靈通洞口圖

그러나 國朝文科榜目 속에서는 그의 外祖父를 趙威鳳이라고 했음으로 아마도 이것은 國朝文科榜目이 잘못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 잘못이 이 靜春樓帖에서 確認된 것이다. 그리 고 이 自傳속에서

豹菴自誌

翁自稱豹菴自幼背有白癩斑紋似豹仍以為禪

蓋自號之也翁姓姜氏貫晉州名世冕字光之考

大提學文安公諱 祖雪峯文貞公諱 曾

祖竹窓金和中樞諱 齋朝殿烈公諱 之後

外祖廣州李公諱 翁生于

肅廟癸巳閏五月二十一日幼聰穎年十三四能作

行書成有非而作屨障者十五娶晉州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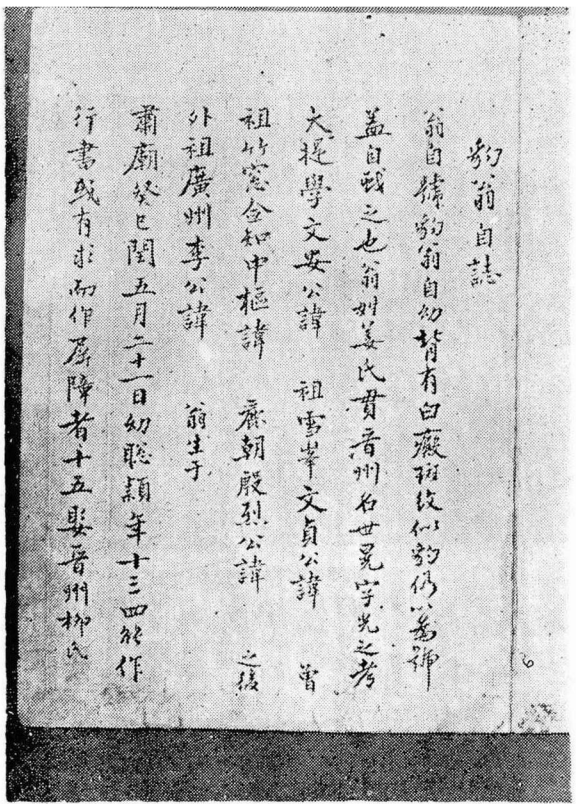


圖 2 : 靜春樓帖中自筆自誌

그의 夫人이 그의 一五歲에 結婚한 晉州柳氏임을 밝히고 婦德이 높다고 스스로 稱讚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나이 一三、四歲에 이미 行書를 잘 써서 或者는 自己의 글씨로 屏風을 꾸미기도 하였다고 自讚하고 있다. 그리고 自己가 科擧를 하지 않게 된 것은 家兄 府使公이 억울하게 오랜 流配生活을 했으므로 그로 인하여 생긴 가정의 破綻을 보고 느끼는 바 있어 자기는 科擧할 뜻을 버리고 수십년간 公부를 많이 했다고 밝히고 나서 그후에 自身의 藝術과 私生活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靜春樓帖은 五四歲(一七六六)에 쓴 것으로서, 當時의 豹菴은 南山草堂에 칩거해있으면서 글을 읽고, 詩를 쓰며,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英祖 四八年(一七七二 A·D)에 나이 六〇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에 나가 蔭官벼슬인 英陵參奉이 되었다. 六四歲(一七七六 A·D)에 漢城府 判官時代에 耆老科에 壯元했으며 六六歲(一

七七八 A·D)에 兵曹參知의 現職에서 文臣廷試에 應試 壯元했고 一七八三年 九月 漢城府判尹, 一七八四年 十月 乾隆帝 千秋宴에 進賀謝恩兼 冬至使가 파견 되었을때 그는 副使로 갔으며 一七八五年 二月에 歸國하였다. 이동안은 老年期였지만 燕京生活에서 새로운 文藝의 知見을 많이 갖고 왔을 것이다. 一七八九년에 다시 漢城府判尹 그러다가 二년 후인 一八九一年에 作故했다.

어쨌든 이렇게 一生을 살아간 본인에 記錄을 綜合해보면 人品이 담백하고 욕심이 없으며 사람을 보면 매우 반가와하고 친근감이 있어서 마치 친형제나 친척을 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분이었던 것 같다. 그는 항상 松林속의 南山草堂에 숨어 글을 읽고 글씨를 쓰고 風流를 즐겼기 때문에 마치 平地神仙을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鄭元容의 經山集이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간 분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自負心 금지같은 것이 그에게도 대담했던 것 같다. 앞서 말한 靜春樓帖에서 自己에 대한 긍지를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러한 一面을 보여 준 것이다. 그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느냐 하면

「詩之杜之」「文之退之」「筆之羲之」「畫之愷之」「光之兼之」

라 하여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兼之했다고 自讚하고 있다. 이것은 六〇 평생동안 청빈하고 깨끗하게 공부하며 살아온 생활에서 스스로 넘쳐나는 자부심의 發露가 아닐까 생각된다.

豹菴은 書에 있어서도 李朝書藝史上 독특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데 豹菴體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獨自的인 것이었다. 그가 乾隆帝를 만났을 때 皇帝로부터 글씨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받아서 「米下董上」이라는 扁額까지 내렸다고 한다. 즉 「米芾에는 미치지 못하나 董基昌보다는 격이 높다는 乾隆帝의 편액은 막연히 칭찬한 것이 아니라 姜豹菴의 書體에서 받은 비상한 인상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米芾을 닮기도 쉬웠고 董基昌의 영향도 작용했을 그런 시대 상황속에서도 재질을 살려서 독특한 豹菴體가 成立될수 있을지한 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姜豹菴의 글씨를 단지 누구의 영향이라고 꼬집어 내기보다는 그의 예술가적인 재질이 능히 米芾이나 董基昌의 書格을 자기 것으로 잘 消化할수 있었던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米芾의 영향은 어느 정도 컸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평소에 杣葉의 인격과 그의 예술을 깊게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豹菴이 평범한 또는 잡다한 樣式의 중국본보기 그림들을 바탕으로 그리는 畫家로서 또는 文氣있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지식인 畫家로서 막연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말하자면 松都紀行帖같은 新資料의 그림에서 그 때 우 革命的인 表現法을 定立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전통적인 皴法을 용하게도 無視했던 것이다. 皴法이란 전통적인 東洋畫에서 表現技法의 본 바탕을 이루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色彩의 濃淡을 가지고 立體感을 表現함으로써 말하자면 西洋畫인 手法를 連想



圖 3 : 松都紀行帖中白石潭

케 해주었다. 그러나 과연 豹菴이 어느 길을 통해서 西洋畫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速斷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對比적인 性格을 가진 立體感이나 面을 表現한 것이 松都紀行帖이었으며 이것은 매우 신선한 近代感覺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色感에서도 매우 무르녹은 水彩畫의 感覺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松都紀行帖속에서 보여준 청신하고 참신한 혁신

적인 표현방법이 과연 자기 한사람으로 끝났는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어면 作用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이런 類型的인 그림들이 많이 발전되지 못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런 西洋畫의인 묘사법이나 立體感을 내는 方法, 平面의 展開法같은 西洋畫의인 技法이 간혹 몇사람의 작품에서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玄齋의 斷髮嶺望金剛圖같은 것인데 여기서 表現한 水彩畫의인 設彩技法이나 立體表現 또는 畫面의 展開法같은 수법은 다른 그림보다 이색적인 表現을 보이는 作品이라 하겠다. 또 姜熙彦은 豹菴과 비슷한 時代이며 친척간으로서 그의 仁旺山圖같은 것 역시 색깔이나 畫面展開같은 것이 西洋畫에서 받은 인상이다. 檀園의 作品이라는 龍珠寺의 後佛幀畫도 色彩의 濃淡을 갖고 立體感을 낸 것이나 遠近을 表現하는 技法 등이 姜豹菴이 松都紀行帖에서 보여준 例와 마찬가지로 西洋畫의인 여운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짐작하건대는 姜豹菴의 이런 솜씨는 그 주위에 얼마간의 감화를 미쳤을 가능성을 일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서울 畫壇에서 차지하는 指導的인 位置나 年齡으로 보아 당연히 그의 새로운 畫風이 주변에 파급되었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러한 面에서도 매우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매우 先驅者의인 面貌를 갖춘 예술가였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그의 評價에 있어서 美術評論家로서의 豹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李朝時代에는 뚜렷한 批評家는 없지만 남의 그림에 畫題를 썼거나 남의 그림에 소신껏 藝術論을 展開한 사람들을 뒤져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姜豹菴이었다. 비록 독립된 美術批評에 대한 서술은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의 作品에 쓴 題跋만 가지고도 굉장한 수에 달할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가 그 당시 가장 眼目 높은 批評家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그는 좋은 그림이 아니면 畫題를 쓰지 않는 경향이 농후한데 좋은 그림을 찾아 정력적으로 畫題를 쓰는 意慾의인 藝術批評정신 또한 다른 作家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을 만큼 뚜렷했던 존재였다.

(講演錄音要旨)